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6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25일(음력 6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세계 불교인구 감소 영향

신중일 기자 · 김민재 객원기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종교 지형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불교 인구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전문 여론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6월 9일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 지형의 변화(How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Changed From 2010 to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불교 인구는 3억 4300만명에서 3억 2400만명으로 줄며 약 5% 감소했다. 불교 신도의 세계 인구 비율 역시 2010년 5%에서 2020년 4%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종교는 이슬람으로 17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21%가 성장했고, 기독교는 인구수로는 21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독교는 세계 인구 비율에서는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美퓨리서치, '세계 종교 지형 변화'
2010~2020년 10년간 변화 조사
세계 종교 중 불교만 5% 감소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주원인
韓불교 감소폭 최상, 최근 회복세
가족 간 세대 전승 필요성 높아
'핵심 신도 양성' 목표 전법해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불교 인구의 98%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교 인구는 10년간 6% 줄었다. 반면 북미에서는 27% 증가해 500만명, 유럽에서는 26% 증가해 250만명에 달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소규모지만 불교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인구의 94%에 해당하는 6800만명이 불교도다. 그 뒤를 이은 중국은 5300만명으로 세계 2위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전 세계 불교도의 91%는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 종교로서 불교가 자리 잡은 국가는 캄보디아(97%), 태국(94%), 미얀마(89%), 부탄(75%), 스리랑카(70%), 라오스(64%), 몽골(51%) 등 7개국이다.

이 같은 불교 인구의 감소세에 대해 퓨리서치센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및 '탈종교화' 현상과도 연결된다"면서 "실제 중국 불교 인구는 2300만명, 일본 불교 인구는 70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 인구 비율로 조사했을 때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한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6%였던 한국에서의 불교 인구 비율은 2020년 19%로 7% 감소했고, 인구수로는 260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교 인구는 15.5%(761만여 명)로 가장 낮은 수치가 조사됐고, 이후 가장 최근 이뤄진 한국리서치와 신대승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각각 17%, 19%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퓨리서치센터는 "불교 인구의 전 세계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국·홍콩·일본·한국·대만·베트남 등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제도화된 서구식 종교를 떠올리고, 수행하거나 사찰에 가도 '불교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조사의 한계점을 밝혔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불교 인구는 스스로 불교에 공식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활발히 신앙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국한된 수치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중심의 세대 전승'과 '핵심 신도 양성'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종이 어려운 '가족 중심 신앙' 형태가 구축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제5차 비교 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개종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이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은 보고서를 통해 "부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자녀도 해당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동일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교육화·조직화된 신도 조직을 육성해야 함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을 기존 교단에서 수용하고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 신행과 문화를 앞장서서 선도해야 하는 신도 그룹들, '핵심 신도'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최근 문화적으로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저변은 확대됐지만, 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신행하는 '신도'로의 유입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신도를 양성하기 위해선 가족 중심의 세대 전승부터 강화돼야 한다. 최소한의 간단한 불교 의식을 할 수 있는 불자가 가족에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을 핵심 전법포교 조직으로 인식하고 가족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 "캄보디아에 희망을"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한명우)가 함께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에 나섰다. 양 기관은 6월 11일 시엠립(Siem Reap)주 앙코르 톰(Angkor Thom) 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5억원 상당의 의료물품 뿐 아니라 한마음선원과 마하무용단,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후원금과 생필품, 학용품 등 후원에 나선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물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양국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앙코르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문화 확산, 홍보 활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한일불교, '하루 5분 명상'으로 세계 평화 실현

제42차 한일불교교류대회서
6월 18일 공동선언문 발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오른쪽)이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에게 평화의 종을 전하고 있다.

한일 불교계가 개인의 내면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과 민간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는 6월 18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명상보급과 실천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불확실성이 심화된 시대, '하루 5분 명상'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쟁, 갈등, 재난, 사회적 분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자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개개인의 마음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며 명상보급을 넘어 명상의 생활화를 위해 하루 5분 명상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의회는 협력으로 한일·일한 민간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양국 정부 간 외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벽과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교류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적·인식적 간극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교육·청년교류 등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명안 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 스님이 서명하고 낭독했다.

앞서 열린 학술강연회는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상교 교수는 '21세기 논장(論藏) 편찬에 관하여'를 주제로, 진관 스님은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이케가미 마나 강사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갑시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生前豫修齋 생전예수재
袈裟裟佛事 가사불사

불기 2569년

가사불사
입재 7월 2일 수요일 (음 6. 8) 오전 10시
회향 8월 12일 화요일 (음 윤 6. 19)
• 이운식 오전 9시 영산전
• 회향식 오전 10시 설법전
동참금 스님 지정 7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재 7월 2일 수요일 (음 6. 8) 오전 10시
회향 8월 19일 화요일 (음 윤 6. 26)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망 설판 10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의 • 기도 접수처(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